

---

[토론문]

최희진의 「전위가 못된 청춘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토론문

---

박연희(연세대)

이 발표문은 김광현, 김상훈, 이병철, 박산운, 유진오가 엮은 『전위시인집』(1946)을 중심으로 “해방기 좌익 문단” 자체보다 그 복잡성에 주목한 글이며 특히 “전위라는 정치적 호명”이 구현되(지 못한)는 방식, 신진 시인들을 표상하는 기성세대, 또는 좌익 문단의 문제성과 규율화, 언어화 되지 않은 정동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어 해방기 시문학(사)를 재검토하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위시인집』의 이념적 기획과 현존하는 청춘의 내면 사이에 균열”을 세대론적으로 도식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미학적이든) 이 앤솔로지 그룹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세대적 조건, 민족문학의 전위라는 좌파적 ‘해방’의 문학적 과제와 실천 등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이를 여쭙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1920년대 전후에 출생한 『전위시인집』 그룹은 여상현과 이병철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방 직후에 등단한 시인이지만 이중언어세대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과도기적으로 체험했다는 점에서는 친일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기성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학가동맹>에서 민족의 혁명가로서 이들 세대의 청년 표상을 전면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성 세대의 욕망”에 해당하는 신진의 특정 이력, 체험, 문학성 등) 해방기 청년상을 식민지기 사회주의의 청년 담론과 연속해 보더라도 고유한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시인들과 달리 애초 망설임” 없이 인민의 혁명적 역사를 적극적으로 긍정했다는 선생님의 평가는 다소 추상적인 텍스트 분석일 수 있어서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담론화할 수 있는 청년의 개념과 범주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또한 해방기 좌파적 청년 담론은 현안에 따라 강화 또는 약화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컨대 1946년 들어 본격화된 미군정의 언론 탄압, 10월 인민항쟁, 좌익 인사의 월북과 남로당 창당, 미소공위 등)

선생님이 “공적인 애도 유형의 슬픔”으로 인용한 김광현의 「조국은 울고」, 김상훈의 「장열」은 학병에 대한 대표적인 추모시입니다. 실제 전위시인들 중 학병에 징집된 경험이 있고 그것은 (신진이든, 기성 시인이든) “의도”, “기획”과는 다른 체험적 재현의 방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익 문단에서 소비된 청년 담론에서 벗어나 『전위시인집』 그룹을 볼 때 신진 시인들의 자생적 좌파성(또는 전위성)은 무엇일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존의 문학사에 고정된 『전위시인집』=좌익문학의 전범’과는 다른 각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유진오의 「누구를 위한 벼차는 우리의 젊음이나?」에 대한 필화사건을 “임화의 상찬”으로 주목하셨는데 전위시인들의 위상을 이렇게 의미화하는 방식이 새로운 분석이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논지에 따라 이 신진 시인들을 문학사적으로 ‘전위시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호명한다면?

가령 이들의 청년/청춘 표상을 ‘만들어진 것’으로서만 이해해야 하는지, 의식화된 투쟁성과 선동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전위성을 읽어낼 여지는 없는지, 즉 “전위가 못된 청춘”으로서 앤솔로지가 문학사에서 “가라앉아 있었다”는 평가에 재론의 여지는 없는지, 더 나아가 (『전위시인집』과 청년 담론을 새롭게 살피기 위해) 이념적, 문학적 입장의 편차와 관계없이 ‘해방’의 문학적 상징을 통해 식민지기의 궁핍한 시간을 극복하고 민족의 전위를 보여준 (기성 세대가 아닌) 다른 해방기 등단 시인과의 비교는 불가능한지...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전위시인집』을 “기성 시인들의 전위-청춘 담론에 기여하도록 기획된 시집”으로 결론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기한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해방기 시인들은 미국의 전후 처리 방식에 찬성/반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만들어 갔고 그 텍스트들은 시인의 좌우 이념 활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통치 문제와 같은 해방기

의 역사적 현실을 증언한다는 책임의식을 표방합니다. 선생님도 좌우 편향적 문제보다는 “청춘의 중층성과 다성성을 복원”하는 것으로 해방기 문학사를 입체화할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전위시인들의 문학사적 재정위는 앤솔로지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족 국가 건설의 현안을 특정 제재와 심미적 계기로 삼아 표현했던 이들 전위시인들의 개별 시집과 정치/문화 활동을 좀더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단정수립까지 전위시인들이 당대를 역사적 전환기로 새롭게 수용하고 인민 주체를 뚜렷하게 형상화한 부분이 있다면(『칠면조』, 『창』 등) 전위성은 세대론적 헤게모니 속에서 만들어진 대타의식의 산물만이 아니라 분단과 냉전이라는 위기의식에 대응해가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선생님이 쟁점으로 삼는 청년 담론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토론문]

심아정 <변경으로(부터)의 귀환  
- 일본인 여성'들'의 전후를 말하다>에 대해

---

가게모토 츠요시(리츠메이칸대)

이 글은 일본 패전 후의 ‘외지’ 또는 ‘전선’에 있었던 일본인 여성이 경험하게 된 여러 사건을 배치하면서 그 의미를 민족/인종/성(젠더)/계급을 묶어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이야기되는 방식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관련된 여러 서사에 다가가는 아이디어를 준다.

이 글에 나타나는 단어/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히키아게’, ‘임신중지 시술’, 만주에서의 ‘성’, ‘혼혈아’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 ‘우생보호법’, ‘구로카와 개척단’, 공적론과 희생양론 - ‘성의 방과제’/일본인 ‘위안부’ 등 매우 다양한 시각이 연쇄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본의 ‘피해 서사’, ‘희생 서사’에 이미 휘말리고 있으며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반복되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일본인의 고통의 서사로 횡령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여러 이야기를 ‘은급’(17쪽), ‘원호’(19쪽)의 논의로 정리시키지 않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은급과 원호는 일본국가가 전쟁에서 공헌한 사람에게 ‘감사’의 의미로 금전적/정신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그 중 정신적인 보상은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준다’는 일도 포함된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했던 당신에 대한 감사의 의사표시로 그렇게 해줄 테니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도 잘 부탁한다는 ‘감사’의 논의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의미는 완전히 없다. 그리고 희생된 사람에게 감사하는 담론이기 때문에 쉽게 미답이 된다. 참고로 오키나와는 격전지가 되었는데 전후 일본정부는 일본군을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군인이 아닌 오키나와 일부 주민 또한 ‘군속에 준한 존재’로 인정하며 ‘원호’ 대상으로 삼았다(이는 19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안부였던 사람을 ‘준 군속’으로 삼아 원호대상자로 하자는 일본 국회 논의와 같은 구도이다). 희생과 피해에 대한 감사의 서사는 사건을 재발시키지 않기 위한 논의(반성)가 아니라 다시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담론화이다. 그리고 이 담론은 ‘나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으로, 어쩌면 죽음까지 수반될 수 있는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사의 서사에서 패해나 희생의 강조는 감사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 원인을 만든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구로는 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의 서사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자들이 지니던 식민자로서의 가해성은 언급될 여지가 없다.

이 글은 그러한 감사의 서사(미답)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하기 위해 이 글이 일차적으로 시도한 것은 피해서사가 가지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작업이다. 마치 현재의 외국인 혐오처럼 ‘혼혈아’의 임신중지 시술을 한 시설에서는 인종주의가 어떻게 문제삼지 않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귀환여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변경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변경일 수밖에 없는 조국이나 고향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귀환여성들에게는 변경 ‘으로’ 돌아온다는 모순적’(21쪽)경험을 읽어낸다. 따라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sup>1)</sup> 말하자면 이 글이 시도한 것은 감사의 서사로 성립될 수 없고, 성립시켜서도 안되는 영역을 열어가는 것이다.

1) 이 글의 취지에서 벗어나지만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땅을 찾아 다시 ‘전후 개척’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이미 많이 축적되어 왔다. 지금의 나리타 공항은 농민들의 농지를 박탈하고 건설되었는데, 이에 반대한 산리즈카 투쟁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농지는 ‘만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후에 개척한 땅이었다(오제 아키라, 이기진 옮김<우리 마을 이야기>전7권). 또 작가 호시노 도모유키는 전후에 일본을 떠난 도미니카 이민들에게 ‘기미가요’는 ‘기민가요(棄民が世:사람을 버리는 세상)’였다고 말하게 한 소설을 쓰기도 했다(<砂の惑星>). 패전 전의 일본국가의 만주개척정책은 20년 동안에 100만 호를 만주로 보낼 계획이었는데 패전 후 일본국가의 전후개척 계획은 5년 동안에 100만 호를 국내 각지에 입식시킬 계획을 세웠다(安岡健一『戦後史1945-2025 敗戦からコロナ後まで』, 2025, 20쪽). 이 글에서 임신중절과 관련되고 언급되는 우생보호법 또한 일본 전후의 식량부족과 인구급증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安岡健一, 위의 책, 21쪽).

여기까지가 나름의 정리인데 다음에 질문(이라기보다 감상)을 던져보고 싶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배치할 때 어떠한 의미를 만들고 있는가? 토론자는 이 글이 ‘장소’에 대해 집요하게 논의한 부분을 더 밀고 갔으면 좋겠다. ‘후쓰카이치’, ‘하카타 항’, ‘구로카와’, ‘일본 국회’ 등 시공간적 격차를 가지는 장소들이지만 이를 파고들어가면 과거의 ‘감사의 서사’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여러 이야기를 짚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의로운 작업이다. 그것은 지도상에 그린 ‘국경’같은 선을 전제로 한 사고(혼혈아를 임신중지하는 일이 ‘격경 전략’으로 묘사된다/11쪽)라기보다 일본패전으로 인해 재편된 선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험들의 ‘장소’에 집중하는 사고이다. ‘변경’이란 ‘중심과 주변’의 사고로는 세계의 끝이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본다면 접촉의 교차점이다. 접촉을 관리하는 국경통제가 중심과 변경을 만든다면 ‘변경’으로 취급된 장소의 경험들에 파고들어가는 작업은 그곳을 ‘변경’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인식의 지도를 재편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sup>2)</sup> 그것을 ‘연쇄’적으로 다룰 때 또 다른 선이 출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은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구두로 하겠습니다.

---

2) 이 또한 이 글의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최근에 아오나미 안(靑波杏)의 일련의 소설을 언급해두고 싶다 (<유곽의 파업>을 쓴 양베 유헤이山家悠平의 소설가로서의 필명이다). 그의 소설은 아른바 순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아쿠타가와상의 대상작들이 실릴 만한 권위 있는 문예지에는 나오지 않는 관계로 아직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국경을 넘어가는 여성들의 서사로 일관되고 있다. <楊花의 노래>(2023, 문고판 2025), <日月潭의朱い花>(2024), <花咲く街の少女たち>(2025), <夜が明けたら>(2026).

---

[토론문]

백소연의 「기억의 층위들: 우키시마호 사건의 귀환과 재현」에  
대한 토론문

---

박연희(연세대)

우키시마호 사건은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독립에 중첩된 전후(戰後)의 시간성을 환기합니다. 극단적인 죽음과 희생은 일본의 패전과 전후 인식에 따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문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의 인권 문제, 독도 등의 영토 문제와 같은 한국의 포스트 식민의 현안과 맞물리지만 공식화된 역사가 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억과 민간기억의 상호성과 복잡성이 문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누락된) 패전 서사와 해방 서사 속에서 “우키시마호 사건의 귀환”이 표출된 시대적, 담론적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영화 <아시안 블루>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쉽습니다. 일본에서 선행된 연구와 재현의 관점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식으로 기억을 호출하는가”에 주목해 재현 양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백소연 선생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발표문은 장르적으로는 연극, 영화와 다큐멘터리, 국가적으로는 남한과 북한과의 비교 속에서 우키시마호 사건이 문화적으로 기억되는 재현의 지형도를 첨예하게 살핀 글입니다. 무엇보다 허구적 서사(북한 영화 <살아있는 령혼들>)/사실적 서사(남한 다큐멘터리 영화 <우키시마호>) 간의 비교 속에서 감정의 정치학을 세밀하게 분석한 부분은 (단지 남북한의 차이보다) 체험과 재현 간의 괴리, 개인적 체험과 역사적 의미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트라우마 기억 및 증언을 다루는 예술적 난제와 연결됩니다. 토론은 과거의 체험과 현재의 재현 간의 윤리적 문제, 더 나아가 재역사화(또는 재정지화)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관하여 여쭙는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다루는 대상의 순서상 역사적 대참사에 대한 이른바 사후적 기억(postmemory)을 재구성하고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윤리적 태도에 더 부합하는 것은 정복근의 <집>(2007)인 것 같습니다. “국가, 시민, 관객”, “감정의 동원, 책임의 요청, 연루의 자각”이라는 분석 틀에서 그렇게 읽힙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전쟁과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희생자의식으로 새롭게 재검토된 지 오래이나 예술적 층위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망각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기억을 재생시키는 데 그치거나 정치적 입장의 응시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세 편의 텍스트를 차례대로 분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현의 형식” 또는 “윤리적 장치”로서 이 세 편을, 이를테면 서로를 되비추는 텍스트로 재해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령 한국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어 간다”(6쪽)고 할 때, 이는 도덕적, 이념적 구도를 강화하는 북한 영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 북한 영화는 하나의 국가주의적 서사로 봉합된 경우이지만, 달리 보면 희곡이 재현한 표상 불가능성, 즉 하나의 사건을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란 다른 무엇보다 북한 영화 속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이 혀=말을 잃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형상을 얻게 됩니다. 텍스트 내부의 서사적, 재현적 결함이나 한계가 오히려 다른 텍스트와의 비교 속에서 반정립(혹은 재비판)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분석대로 <집>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을 넘어, 사건 이후의 세계에 위치한 인물들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기억에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재현 불가능성을 징후적으로 구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키시마호 사건을 포스트 식민의 미해결 과제로서 정치적으로 재정위시킵니다. 그렇다면 재현에 대한 문제성을 짚어내기에 앞서 ‘우키시마호 사건이 귀환하는’ 담

론장, 곧 “오랫동안 공식적, 사회적 기억의 바깥에 머물러 있던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해석의 경합 지점에 대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공적 담론 공간을 재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선생님이 논의하신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1990년대 이후 해석과 재현에 대응해 해방의 재현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의제가 있다면 이 역시 공유하고 싶습니다.